

교회소식

< 담임목사 방송설교 >

- CBS TV(채널 68) 월 오후 2:00 ~ 2:30
- 극동 방송(FM 93.3MHz) 수 오후 5:30 ~ 6:00
- CTS TV방송설교(채널97-1) 목 오후 1:00 ~ 1:30
- CBS 라디오(FM 91.7MHz) 금 오후 12:30 ~ 1:00



◎ 6월 기도의 십일조 ◎

- * 일시 - 1일(월) ~ 3일(수)
- * 강사 - 조상용 담임목사

◎ 예배 회복의 날 ◎

- * 모든 예배를 종전대로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착용하여 드립니다.
- * 찬양대는 정해진 소수의 인원으로만 준비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 * 주일 중식은 봉사자들을 위한 식사만 준비합니다(성도들은 각 가정에서).
- * 주일1부예배, 화요중보기도, 수요목자교육, 목요전도, 금요목장모임을 시작합니다.
- * 주일오후예배는 새롭게 성경읽기예배로 시작 합니다.

[모임]

1. 국장, 부장 연석회의 - 오늘 오후 예배 후 / 본당(대상: 각 국 국장, 부장, 회계)

[알림]

1.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 오늘은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킵니다.

[담임목사 동정]

1. 2020 대가연 가정의 달 연합예배 및 표창식 - 오늘 오후2시 / 삼성성결교회

섬기는 분들

♣월요당직 : 조정옥 전도사

담임목사 조상용	원로목사 김주원	시무장로 김덕현	배정만	홍순영	이원명	이대영
부목사 고윤철	오상옥	김종명	송경호	정기조	윤종명	황덕순
전도사 김명순	조정옥	전상순	김수종	임인성	전용주	
교육전도사 정선교(고등)	지서광(중등)	현기훈(초등)	원로장로 이인창	편봉달	정대용	최영일
	안성민(유년)	이정아(유치)				윤재룡
직원 박연희(사무)	김현철(관리)	안철호				
어린이집 주경애(원장)	김경희	권영은	박선희	김효진	은퇴장로 김영한	장순석
					김기성	권소열
					송은규	

교회주소 - 34532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748번길 40 (가양동) FAX 632-0281
www.jungbu.or.kr / 사무실 622-9991,2 / 큰숲어린이집 622-9995 / 카페(필그림) 625-9991

Since 1958. 09. 15

2020. 5. 31 (NO. 62-22)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중부교회

담임목사 조상용

우리의 비전

위대한 교회
영광스런 교회를
보게 하소서!

4대 사명

-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
-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
- 성도를 제자삼는 교회
-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8대 사역

1. 예배 사역
2. 목장 사역
3. 가정 사역
4. 기도 사역
5. 제자 사역
6. 미래 사역
7. 복지 사역
8. 전도 사역

도심 속 하나님의 나라
세종중부교회
(담임목사 하우진)
2018. 7. 7 설립

세종시 보람동
금강베네치아 5층
010-7770-8291

주일예배

1부 / 오전 7:00

2부 / 오전 9:00

3부 / 오전 11:00

* 입례송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 신앙고백	사도신경
회중찬양	모든 상황속에서 / 송축해 내 영혼
참회기도	다같이
대표기도	양희찬 집사(1부) / 정기조 장로(2부) / 윤종명 장로(3부)
찬양	예루살렘(2부) / 할렐루야(3부)
성경	마 17:1-13
설교	예수님의 기적(20) : 용모가 변화되신 기적 조상용 담임목사
헌금	86장
광고	인도자
* 공동체고백	사명선언문
* 폐회송	우릴 사용하소서
축도	조상용 담임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안내

주일4부 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주일오후 성경읽기예배	오후 4:00 (본당)	수요일예배	1부/오전10:00(본당) 2부/저녁7:30(중예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양: 드림 찬양단 * 기도: 이동규 형제 * 설교: 김종명 목사 * 성경: 출 19:1~6 <p>“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양: 주찬양 찬양단 * 기도: 임춘화 집사 * 인도: 오상옥 목사 * 성경: 마 1장~5장 <p>“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앙고백: 사도신경 * 기도: 정윤옥 집사(1부) 강은자 집사(2부) * 설교: 고윤설 목사 * 성경: 느 2:1~12 <p>“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태도”</p>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당)	목요영성기도회	저녁 8:00 (본당)
히브리서 - 담당 교역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양: 아이노스 찬양단 * 설교: 조상용 목사 	

다음주 봉사안내

주일오전	1 부	김동춘 집사	안내위원	5 여 전 도 회	
	2 부	윤종명 장로		금 주	가양3-10, 3-11, 3-12
	3 부	황덕순 장로		내 주	남3-3, 3-4 삼호, 현대, 용운 남3-5, 3-6
주일새벽	금 주	이종옥 권사	주차위원	나승문 김상복 김종현 김대순 박노태 박대수 이길천 이종규 임춘수	
	내 주	김옥희 권사			
주일오후	내 주	이종규 집사	차량운행	2호/ 이본구 집사	010-8281-3779
				3호/ 김동윤 집사	010-6804-5574
수요일예배	1 부	이자영 집사		권소영 장로	010-8070-3533
	2 부	김경희a 집사		4호/ 유창웅 집사	010-6407-8515
				5호/ 이윤성 집사	010-9033-5338
				6호/ 채기병 집사	010-5579-9103
				임인성 장로	010-9577-9500

예배시간 안내

주 일	1부 예배	오전 7:00	유아부	오전 11:00	수 목	1부 예배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9:00	유치부			2부 예배	저녁 7:30
	3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			목요영성기도회	저녁 8:00
	4부 예배	오후 2:00	초등부				
	베데스다	오전 9:00	중등부	오전 9:00	매 일	새벽기도회	새벽 5:00
	오후예배	오후 4:00	고등부				
			청년회	오후 2:00			

기도 게시판

365일 릴레이 기도 담당

월 (1일)	조상용 김혜경 최영일 최영희
화 (2일)	이연옥 박숙희 송정숙
수 (3일)	고윤설 조정옥 심윤중 공중호
목 (4일)	이영학 안중근 국은희
금 (5일)	임현성 오상옥
토 (6일)	황덕순 이종옥
주일 (7일)	임영숙 유창웅 김정식 전용주 권연옥 정영자

※ 기도담당자는 하루 한 끼 금식하고 한 시간 이상 집중 기도해 주세요!

기도제목

1. 위대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게 하소서! (마 16:18)
2.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9:20)
3. 365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14)
4.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요 17:22)
5. 도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 5:16)

중보기도사역

요일	기도 내용	담 당	시 간	장 소
월	교회와 개인을 위해	한혜숙 권사	오전 11시	기 도 실
화	교회, 선교, 중보, 개인을 위해	이영숙 권사	오전 10~12시	기 도 실
수	나라와 민족, 교육 부서를 위해	심윤중 권사	오전 11~12시	기 도 실
목	성령의 능력과 치유, 회복을 위해	목요영성기도회	저녁 8시~10시	본 당
금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이종옥 권사	밤 12시~4시	한 나 방
토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이성희 권사	오후 2~3시	기 도 실
주일	목사님과 주일 예배를 위해	홍선덕 권사	오전 10~11시	기 도 실
119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119 문자	문자 전송 시	처소에서

사명선언문

대전중부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정을 치유하며,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여,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위대하고 영광스런 주님의 교회가 실현되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게시판

주간 성경읽기

날짜	31일(주일)	1일(월)	2일(화)	3일(수)	4일(목)	5일(금)	6일(토)
성경	시17-19	시20-22	시23-25	시26-28	시29-33	시34-36	시37-39

♠ 환우

☞ 1교구

* 이종대 집사(남1-5, 박정임 권사 남편) - 다리인대파열 / 신탄진 보훈병원 52동 2호

☞ 3교구

* 육종권 집사(남3-4, 최수자 권사 남편) - 고관절 골절 수술 / 성모병원

모임안내

새가족 성경공부

구분	시간	담당자	기간	장소
새가족반	2, 3부 예배 후	오상옥 목사	4주	당회실

평신도 신앙훈련

구 분	내 용		기간	사 역 목 표	담 당 자
신앙성장 과 정	학습·세례 교육		3주	신 앙 교 육 강 화	담 당 자
	교 리 생 활 공 부		1년	1 학 기 : 교 리 편 2 학 기 : 생 활 편	담 임 목 사
	가 정 사 역 학 교		13주	행복한 가정 만들기	김 혜 경 사 모
	제 자	제자반	1년	그리스도의 제자양육	교 구 목 사
	훈 련	사역반	1년	사 역 자 양 육	담 임 목 사
	목 자 훈 련		매주	목 자 훈 련	각 교구 교역자
	양 육 1 단 계		5주	공 동 체 를 통 한 하나님 경험하기	담 당 자
	회 복 수 양 회		1박2일	내 적 치 유	담 당 자
	양 육 2 단 계		8주	성숙한 성도의 삶 경 험 하 기	담 임 목 사
	중 보 기 도 학 교		6주	기도 헌신자 훈련	담 당 자
L M T C	평신도 선교훈련		24주	단기선교 준비 과정	담 당 자
청춘 대학	다양한 교육활동		4년	노년의 행복한 삶	조정옥전도사
아기 학교	주간 아기 교육		12주	신앙적인 전인교육	김명순전도사
목요 전도	전도훈련·지역전도		매주	지 역 복 음 화	고 윤 설 목 사

6월 행사 안내

1일(월)~3일(수) / 기도의 십일조
23일(화)~25일(목) / 전국장로회 연합수련회

28일(주일) / 동대전제일노회 남전도회
순회헌신예배

찬양대

구분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주일새벽 주일 1부	시온	이종운	김예원
주일 2부	예루살렘	이규인	피/ 임지희 오/ 문정애
주일 3부	할렐루야	장지이	피/ 김영미 오/ 임형선

구분	반주자
주중새벽	이성희 김경희
주일오후	강주연
수요 1부	문정애
수요 2부	김경희

교회생활 안내

안전하고 건강한 교회생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예배당 입장 시에

(1) 마스크는 의무적으로 꼭 착용해주시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1층 로비에서 체온측정과 손 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성도들과의 인사는 악수가 아닌 목례로 해주시고, 기침시에는 옷깃으로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3. 화장실쪽 출입구는 사용을 중지하오니, 1층 현관 로비로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에 출타를 하였거나 가족중에 유증상자가 있는 경우,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환후·노약자·영유아 경우, 또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있는 분들은 예배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 주일 말씀으로 은혜받으시기 바랍니다.

5. 현재 교회는 주 1회 토요일마다 각 예배실과 교육시설, 그리고 모든 시설에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우들께서도 안전한 교회생활과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마음을 모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및 돕는 기관

♣ 파송선교사

- 김정배, 이명국(재현, 은희, 상희) / 태국 · 싱가포르
- 이종현 / 국내 몽골이주민 사역(부천)
- 윤명호, 최수옥(인아, 기웅) / 태국
- 조나단, 김은샘(예지, 혜성, 하라, 이안) / 인도네시아
- 버여, 총통체책 / 몽골
- 박춘국, 김은영(주현, 하현, 성현) / 일본
- 안덕준, 이안나(하민, 하진, 하온) / 베트남
- 김현숙 / 태국

♣ 협력선교사 및 선교기관

- 천강민 / 몽 골 · 장석현 / 태 국 · 이수현 / 필리핀
- 김재정 / 태 국 · 김도형 / 태 국 · 장천득 / 캐나다
- 임태호 / 태 국 · 박정선 / 태 국 · 오세연 / 남아공
- 이성율 / 키르기스스탄 · 총회세계선교회(GMS)
- 싼띠팍선교회(SMI) · 일본아가페선교회(AMJ)

♣ 후원교회 및 기관

- 세종중부교회 · 기독교임즈
- 가야중부교회 · 총신대학교
- 옥천각계교회 · 대전신학교
- 대전시기독교연합회 · 동대전중학교
- 대전성시화운동본부 · 가양중학교
- 두란노아버지학교 · 명석고등학교
- 군선교연합회 · 내륙흥 노인회
- 주바라기선교회 · 가양2동 노인회
- 대전기독교방송 · 신도 노인회
- 대전국동방송 · 더퍼리 노인회
- 대전CTS방송 · 비래1,2 노인회
- 내봉 남,녀 노인회

지난 주 말씀 요약

예수님의 기적(19) :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기적(막4:35-41)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오해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고, 있어도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오늘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신 그대로 건너편을 향해 출발했다.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큰 광풍!”을 만난다. 이와같이 우리에게도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교회도 때로 침몰 직전의 위기에 놓인 배처럼 곤경에 처할 수 있으며, 성도 개개인의 삶과 신앙 역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기억하라! 누구나 고난은 따르지만, 믿는 사람은 다르다!

1. 예수님이 함께하시

(38절) “예수께서 고을에서 배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큰 풍랑에 대하여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큰 풍랑 속에서도 조용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반면에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나 혼비백산하면서 죽게 됐다고 야단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이 들이닥치면 문제만 보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러기에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함께 계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비록 주무시는 것 같고, 우리 일에 무관심한 것같이 보여도 기도하기를 멈추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2. 예수님이 보호하시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꾸짖는 것은 위 사람이 아랫사람을 호되게 나무랄 때 쓰는 말이다. 그래서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기적은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우주의 주관자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예수님이 큰 풍랑을 향해 꾸짖으시자, 아주 잔잔하게! 된 것이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다가오는 큰 풍랑같은 문제들을 순식간에 처리해서,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거뜬히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므로,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3. 예수님이 책망하시

(40-41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고난을 만났을 때 새로운 교훈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제자들의 깨달음은 예수님의 책망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가져다주시기 위해서다. 이것을 영적인 각성, Great awakening(대각성)이 일어났다고 말한다. 이런 영적인 각성은 (1)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일어난다. (2)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신지식을 얻음으로써 영적인 각성의 절정에 이른다. 돈이 벌렸느냐 안 벌렸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이런 현상적이고, 가시적이고, 가변적인 것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라. 정말 중요한 문제는 언제나, 누가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셨느냐 이다. 만사는 우주의 주재자되시고 만물의 주관자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5일(금)	찬 488장	히 10:26-31	너희는 생각하라
<p>19절에 기록된 “그러므로”는 앞 문맥의 주된 내용을 원인 또는 근거로 하여 후속적인 결론을 내리거나 어떤 행동을 촉구할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예수님이 드린 희생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가졌으니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또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보며, 재림의 날이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한편,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거나 그분의 거룩한 피를 죄인의 피와 동일하게 여기며 멸시하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은혜의 성령을 거부하는 등 배교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의도적으로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p>			
6일(토)	찬 494장	히 10:32-39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p>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을 향해, “우리는 진리 앞에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정의합니다(39절).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다면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자는 모세의 율법대로 ‘두세 증인들의 증언만 있으면’ 신성모독이나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자를 죽였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피를 버리고 배교한 자에게는 얼마나 큰 심판이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드린 제사의 능력을 아는 자라면 큰 환난 속에서도 담대함을 갖고 인내해야 합니다(35~36절).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인이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할 태도입니다(38절). 믿음을 지닌 자는 잠깐 후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약속의 때에 오실 주님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나는 환난 가운데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p>			
7일(주일)	찬 542장	히 11:1-7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p>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실상과 증거로 설명하면서, 모호한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확신을 뜻한다고 말합니다(1절).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창조된 것을 알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3, 6절). 이를 설명하기 위해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 에녹, 노아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통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고(4절),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으며(5절),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7절). 그런데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 스스로 보증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을 갖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하겠습니까?</p>			

향기로운 예물

십 일 조

곽영옥 구왕성 권영숙 김선자 김수종(김영자b) 김연수 김영미 김영자d
 김은지(김동춘,유덕자) 김정순c 김정임 나승문 남귀자 남상천(김선희)
 노정남(조정옥) 도소재 박연희 박옥자 박용일 박일용(조영희) 박종민 박종보
 서호석(김민희) 손정숙 송경호(김옥희a) 송낙수(송정숙) 송봉우 순찬호(이영숙b)
 신근목(이남희) 신수인 안영세(한혜숙) 안재택 오연자 유영삼(권민숙) 유춘성(황안순)
 육기례 윤명심(이상규) 윤종명(전숙인) 이길천(윤석의) 이대영(이순혜) 이수진b
 이신순(서정자) 이율성 이은희 이응임(김두경) 이재균(김현진) 이정아 이종덕
 이종훈(이지연) 이창익 인치경(김영재) 임영숙 장영애 정경희(최태호) 정상남(이은숙)
 정영자 정태응(윤정옥) 정희성(김윤정) 조규연(서정순b) 조성일(유은정) 주경애
 진정숙 최용호(박미순) 최윤호 최현순 하숙희 하현희 한순옥(길광내) 함수경 홍영숙
 황경숙 황현숙 무명

감사헌금

고윤설(박혜란) 권상희 김덕현(하점순) 김두경(김경선) 김영자d 김영천(남정혜)
 김장식 김태환 김형민(윤혜성) 김혜자 나승문(남한순) 문희정(하용호) 박금임
 박명환(김은주) 박일용(조영희) 박정자b 서성모 성성식(권금자) 송봉우
 신근목(이남희) 신수인 유춘성 이관희 이성수a(장미) 이신순(서정자) 이여진
 이영학(김성순) 이영희 이재균 정영자 정희성(김윤정) 조상용(김혜경) 조성일 주정화
 최영란b 최진수 현성주 현연옥 황경숙 황덕순(김기환) 황명옥 탁구선교회 무명6

선교헌금

곽영옥 구왕성 권영숙 김두경(이응임) 김봉임 김영자d 김정임 나승문 남귀자 도소재
 박일용(조영희) 박정자b 박희인 서호석(김민희) 송경호(김옥희)
 송낙수(송정숙,송태준,송태양) 송봉우 송주현 순찬호(이영숙)
 신근목(이남희,신준영,신원영,박계숙) 신수인 안영세(한혜숙) 안재선 안재택(이상숙)
 안학원 양영준(서영순) 오연자 윤상덕(양길용) 윤정순 윤종명(전숙인) 윤지우
 이대영(이순혜) 이래민 이서진 이수진b 이신순(서정자) 이율성 이은숙 이은희a
 이재균(김현진) 이정아 이종훈(이지연) 이해정 인치경(김영재) 임영숙 장현우(장은혜)
 정상남(이은숙) 정영자 정태응(윤정옥) 정하민 정하영 정희성(김윤정) 진정숙(권문수)
 최민지(최재민) 최용호(박미순) 최윤호 하숙희 하현희 한순옥b 현연옥 황경숙
 황현숙 2남전도회 3여전도회 4남전도회 6여전도회

꽃꽂이헌금 유창웅(김정식) 4여전도회

온라인 헌금계좌: 131-019-689782 [신협-대전중부교회]

장학금 후원계좌: 301-0072-3936-51 [농협-대전중부교회]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1일(월)	찬 268장	히 9:11-22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p>유언은 유연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분 백성이 맺은 언약 역시 죽음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시내산에서 세운 첫 번째 언약도 죽음 의식을 통해 확정되었고, 모든 정결 의식이 죽음과 희생과 피를 요구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드리는 제사(하늘 예배의 모형)는 동물의 피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온전한 예배는 더 좋은 제물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반복될 필요 없이, 죄 사함을 단번에 이룹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최종적인 것이며, 모든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죄를 담당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좋은 제물이 없음을 날마다 인정하며 그분의 희생에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p>			
2일(화)	찬 540장	히 9:23-28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p>하나님께서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 율법을 통해 임시로 죄를 사하는 방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데, 인간의 피 흘림 대신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그 대가를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불완전하고 유한해 반복적으로 행해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새 언약의 백성까지도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는 더 좋은 제물이 필요했습니다(23절).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언약의 피(20절, 참조 마 26:28)를 흘리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이제 동물 제사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지상의 성소 대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대신해 변호하며 간구하고 계십니다(24절). 이러한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28절), 항상 기도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합니다.</p>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3일(수)	찬 425장	히 10:1-18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p>율법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1절)로 죄를 기억나게 하며, 하나님께서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죄인은 율법에 기록된 제사의 법대로 동물의 피를 통해 용서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 용서에는 한계가 있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11절). 하지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다릅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얻고, 영원히 온전함을 얻습니다. 그 결과 죄로 인해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18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완전함 속에 두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에 따라 우리도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참조 마 5:48).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온전함을 받은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일 지금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하지 않다면, 이제 완전하신 주님을 따르기 위해 변화돼야 합니다. 나는 오늘 변화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p>			
4일(목)	찬 435장	히 10:19-25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그리하자
<p>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질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참조 막 15:38). 이로써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구나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19절).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보혈을 힘입은 자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전합니다. 또한 주의 약속하심에 따라 소망을 굳게 붙잡고, 성도 간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를 위해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한 공동체성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교회보다는 회당으로 모였고, 영지주의자들은 지적 교만으로 인해 모이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종교적 허무주의나 지나친 비판주의로 모이기를 거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는 분명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25절), 서로의 믿음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함께 모여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교회야말로 이 땅의 희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p>			